



간호와 함께하는 아가사랑 페스티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시간호사회(회장·김소선)는 '간호와 함께하는 아가사랑 페스티벌'을 8월 30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보건복지부, 유니세프가 후원했다. 페스티벌에서는 모유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출녀가 운영됐다. 각 코너에서는 임신부 건강관리·모유수유·아기발달·육아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했다. 모유수유·신생아 돌보기·베이비 마사지·임신부 체조·응급처치법을 실습해보며 익힐 수 있게 했다. 아빠의 임신육아체험 코너에서는 남편들이 만삭의 임신체험복을 입고보고 임신부의 고충을 이해하

는 기회를 가졌다. 핸드마사지 등 이벤트코너도 마련됐다. 페스티벌 현장에는 임신부에서부터 영유아를 양육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임신·출산·모유수유·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갔다. 김소선 서울시간호사회장은 "모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가사랑을 일깨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면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축사를 했다. 서울시간호사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가사랑 행복사진 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자 전시회가 열렸다. 대상에 '행복을 담은 아이'(조영란 씨)가 선정됐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or.kr



부산시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으뜸상 유가는 아기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제17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9월 1일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부산시가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유니세프가 후원했다. 생후 4~6개월 된 모유수유아 140명이 참가했다. 으뜸상에 유가는(여·6개월) 아기가 선발돼 60만원 장학증서를 받았다. 대한간호협회장상 정세인(남·5개월) 아기에 50만원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비금상 차지훈(남·4개월) 아기를 비롯한 3명이 30만원, 보람상 조은별(여·5개월) 아기를 비롯한 9명이 20만

원, 슬기상 궐이은(남·6개월) 아기를 비롯한 12명이 10만원 장학증서를 받았다. 모유사랑상, 프리벨상 등을 총 21명이 받았다. 으뜸상을 받은 유가는 아기의 엄마 김현정 씨는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엄마들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웠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영은 부산시간호사회장은 "평생건강의 초석이 될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어머니 모두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한간호협회 부산시 건강교육국장(남·5개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노민구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축사를 했다. 모유수유 실천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김숙현 기자 shkim@



강원도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최우수아상 김묘진 아기

강원도간호사회(회장·손혜숙)는 '제14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9월 1일 춘천 베이스호텔에서 개최했다. 강원도가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 유니세프가 후원했다. 생후 4~6개월 된 모유수유아 47명이 참가했다. 최우수아상에 김묘진(여·6개월) 아기가 선발돼 상장과 장학금 50만원을 받았다. 대한간호협회장상 신채원(여·4개월) 아기가 상장과 금메달(7.5g)을 받았다. 우수건강아상 전건울(남·4개월), 김소을(여·4개월), 이채아(여·5개월), 김도현(여·6개월), 정채이(여·6개월)

아기에 상장과 장학금 30만원이 수여됐다. 장려아상 심은경(여·4개월) 아기를 비롯한 5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20만원이 전달됐다. 이븐포상, 존슨앤드존슨상, 모유사랑 으뜸아상·튼튼아상·행복아상 등을 총 35명이 받았다. 최우수아상을 받은 김묘진 아기의 엄마 이승이 씨는 "산후조리원 간호사의 지지 덕분에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었다"면서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 아기와 정서적 교감을 더 깊게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손혜숙 강원도간호사회장은 "모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가족들을 격려하고자 매년 선발대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보건간호사회 보건교육 경연대회

보건간호사회(회장·양순옥)는 '제15회 보건교육 경연대회'를 8월 30~31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으며, 500여명의 보건간호사가 참석했다. 양순옥 회장은 "보건교육에 대한 정보공유를 돕고,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두발표로만 진행했던 경연대회를 올해부터 구두발표와 부스발표로 나눠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보건간호사들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우수 보건교육 프로그램 8편이 구두로, 7편이 부스로 발표됐다. ◇구두발표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부산 기장군보건소(송나리) △금상=울산 동구보건소(조나영) △은상=대구 북구 강북

보건지소(이지현) △동상=광주 북구보건소(조소원) △특별상=경북 경주시보건소(박정희) ◇부스발표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경기 시흥시보건소 △금상=전남 여수시보건소 △은상=강원 동해시보건소 △동상=경남 김해시보건소 △특별상=대전 대덕구보건소. 개회식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김남초 간호협회 제2부회장 대독)이 격려사를 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김갑섭 전남 행정부지사 대독), 주철현 여수시장(최종선 여수부시장 대독)이 환영사를 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회원 전문성 강화 마취간호사회 심포지엄

마취간호사회(회장·정계선)는 제3회 심포지엄을 '부위마취의 실제' 주제로 8월 2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다. 초음파 유도하에 실시하는 부위마취에 대해 다뤘다. 리차드 헨커 미국 피츠버그대 간호대학 교수(마취전문간호사)는 특강에서 "초음파 유도하 부위마취는 초음파기기를 이용해 신경과 혈관의 구조를 보면서 마취약을 주입할 비늘을 삽입하는 방법"이라며 "짧은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 마취제를 주입할 수 있고, 최적의 약물 용량을 사용해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위마취의 실제' '초음파 유도하 부위마취술' 주제강연과 초음파 기기 사용법에 대한 시연이 진행됐다. 정계선 회장은 "최신 마취간호동향에 맞춰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매년 열고 있다"면서 "회원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지역교류 세미나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회장·박순옥 여주대 간호학부장)가 지역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 대학들의 고충과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모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다. 회원 대학을 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교류 세미나를 진행한다. 1차 세미나는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8월 19일 수원여대에서 열렸다. '간호 관련 이슈와 변화' 주제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상담의 원리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법' 주

제로 오인수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강연했다. 회원 대학들이 전공의 시간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강원·대전·충북·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9월 22일 강릉영동대에서 열린다. 특강을 듣고, 문화탐방을 통해 회원 대학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정신간호사회 '정신보건법 개정 대응방안' 학술대회

정신간호사회(회장·김경희)는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역할변화 및 대응방안' 주제 하계학술대회를 8월 30일 개최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돼 2016년 5월 29일자로 공포됐으며,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김경희 회장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정신간호사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회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앞으로 추진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신보건

법 개정에 대한 이해' '정신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전환 및 대응방안'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정신건강증진센터·사회복귀시설·정신병원에서의 간호사 역할변화, 간호대학의 역할변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협, 문항개발 능력향상 기초과정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질 향상을 위해 '문항개발 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과정'을 8월 30일 실시했다. 간호대학 교수 및 임상실무 간호교육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경 한국보건교육진흥원 간호사국가시험위원장은 '간호사 국가시험 정책과 발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변화하는 보건의료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직무중심의 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국시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국가시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 직무에 근거한 통합형 문항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문항 출제 및 검토에 현장실무자가 포함돼야 한다"며 "문항개발위원 인력을 확대하고, 실기시험 및 컴퓨터기반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이경신 한국보건교육진흥원 출제운영국장은 '의료계열 국가시험 동향'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의 평가목표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서 '무엇을 할 줄 아는가'로, 시험과목은 학과목 중심에서 임상직무 중심으로, 문항유형은 암기형 문항에서 문제해결형 문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형 문항(선다형) 작성법'에 대해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시례중심 문제해결형 문항 작성법'에 대해 황선영 한양대 간호학부 교수가 강의했다. 주혜진 기자 hjoo@

KNA 먼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더 JUMP!

19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